

## 사나게 축제

사나게 축제에서는 16세기부터 현재의 아이치현에서 행해지고 있는 곡예 무술인 ‘보노테’ 연무를 볼 수 있습니다. 축제는 10월 둘째 주말에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며 사나게 신사에서 개최됩니다. ‘보노테’ 연무는 일본 전국에서도 보기 드문 농민 무예로 전해지며, 아이치현 무형민속문화재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.

보노테는 전투기술을 연무하는 의식이자 민속 예능이기도 합니다. 달인들은 나무 막대와 칼, 창, 낫 등을 사용한 여유로운 안무를 선보입니다. 이 연무의 기원은 전쟁이 빈발했던 난세인 전국 시대(1467~1568)라고 생각됩니다. 농민들은 지역 다이묘의 권유로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무술을 익히려 했을 지도 모릅니다. 보노테는 후에 몇 개의 유파로 나뉘었고, 각각이 독자적인 형태를 가지게 되었으며 신을 받들기 위해 신사에서 공연되기 시작했습니다. 무사만 무기를 사용할 수 있었던 에도 시대(1603~1867)에는 농민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‘보노테’였습니다. 그 때문에 현재의 아이치현과 기후현에 걸친 각 지역, 180개 이상의 마을 참가자가 사나게 신사에 모여 그 기술을 봉납하고 선보였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습니다.

지금은 에도 시대만큼은 인기가 없지만, 보노테 연무의 봉납은 사나게 축제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. 축제는 토요일에 시작되어 사나게 산 중턱에 있는 2곳의 신사인 동궁과 서궁에서, 한 쌍의 신여(신을 모시는 가마)가 사나게 신사의 본궁 경내로 내려옵니다. 저녁이 되면 제등이 신여를 비추고 보노테 연무의 봉납이 시작됩니다. 그리고 가구라(신에게 봉납하는 음악과 춤)와 야부사메(유적마)가 봉납되고 축제는 일요일까지 이어집니다.